

위대한 영웅들 만나는 곳…파리지앵의 안식처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11>

파리와 성당



몽마르트 언덕 위에 사크레 콰르 성당이 솟아 있다. 대부분 평지인 파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몽마르트 언덕이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앵벌리드 둠 성당 내부에 있는 나폴레옹의 대리석 관.



앵벌리드 둠 성당의 전경.

가톨릭을 국교로 정한 최초의 나라,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말벌’로 불린다. 5세기 랭스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클로비스 왕은 프랑스가 공식적인 가톨릭 국가입을 선포했고, 9세기 샤를마뉴 대제는 교황에 의해 왕관을 받아 ‘왕권신수설’의 기초를 닦았다. 중세에 벌어진 수많은 종교 전쟁에 참전하면서 프랑스는 ‘말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1세기인 지금, 파리의 동네 성당은 일요일이나 돼야 겨우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로 여기는 현상은 차라리 문화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파리 곳곳의 거리 이름에서 가톨릭 성인 성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목 좋은 곳에는 성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달력의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만성절, 성모승천대축일 등 거의 가톨릭 기념일이다.

대혁명 전까지만 해도 출생, 결혼, 사망 등의 행정 업무를 가톨릭이 담당했을 만큼, 가톨릭은 프랑스인의 일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1905년 공식적으로 프랑스 공화국은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종교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이전에 세워진 성당 등 가톨릭 교회의 재산들 역시 모두 국가로 귀속됐음을 물론이다.

▲사크레 콰르

몽마르트 언덕에 우뚝 선 사크레 콰르 성당은 노트르담 대성당 다음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 혁명 이후에 건설했다. 혁명 세력은 가톨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나폴레옹 1세의 제 1제정, 루이 18세의 왕정 복고, 루이 필립의 7월 왕정, 나폴레옹 3세의 제 2제정 등 혁명 발발 이후에도 공화정이 아닌 시기에는 정치와 가톨릭의 밀월이 계속됐다.

특이한 점은 사크레 콰르 성당 건축이 제 3공화정에서 추진됐다는 것이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파리 코뮌을 겪은 뒤 슬픔에 잠긴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할 목적이었다. 이전의 대성당들이 주로 왕과 왕가의 기도와 염원을 담아 지어졌다면, 사크레 콰르는 국민들의 기도와 염원을 담은 점이 달랐다. 건설 비용을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됐다.

성당 바깥에는 마리아나 예수, 가톨릭 성인들의 조각보다 생 루이(루이 9세)와 잔 다르크의 기마상이 더 돌보인다. 특히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나 종교적으로도 신심이 깊었던 잔 다르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바치는 성당의 상징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앵벌리드 둠

대지의 사용권과 관련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마지막 판문이었다. 이 안건은 1873년 7월 의회에서 734표 중 2표를 가까스로 넘기는 389표의 찬성을 얻었다. 추진과정에서 토론이 얼마나 격렬했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성당이지만 단순한 종교 시설이라기보다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의회가 인정한 것이다.

파리 코뮌 당시 가장 격렬했던 장소였던 몽마르트에 성당을 짓는 것은 그 시기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 이들에 대한 속죄 또는 위로의 뜻이 담겨 있다. 성당 건축을 주도했던 드 플뢰리이는 준공 행사에서 “그렇습니다. 코뮌이 탄생했던 이 곳, (코뮌의 사령관) 를레망 토마와 르콩트가 살해된 이 곳에 사크레 콰르 성당이 들어서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앵벌리드 생 루이 둠

센느 강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로 꼽히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에서 강의 좌안으로 고개를 틀면 시원하게 뺨은 대로가 양쪽의 푸른 잔다발 사이로 나 있다. 길 끝의 웅장한 건물이 앵벌리드다. 경계에는 담 대신 나폴레옹 시대에 사용하던 대포들이 나란히 서 있어 군용 건물이거나 적어도 군대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앵벌리드는 ‘상이용사’라는 뜻인데, 이곳은 군인 병원 또는 요양원이다. 군사박물관이 들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외형적으

로나 내용으로나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건물 맨 뒷편에 위치한 금색 돔의 성당이다. 돔 중앙의 일직선 아래에 나폴레옹 1세의 시신이 웅장한 대리석 관 속에 안치돼 있다.

절대왕정의 전성기를 이뤄낸 태양왕 루이 14세는 17세기 후반 “전제군주를 위해 전쟁에 나서 피를 흘린 군인들이 편히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치료 및 요양기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무기의 발달로 전쟁의 피해자가 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요인이었다. 신심이 두터운 루이 14세는 이 기관 내에 들어설 성당 역시 대체 최고의 기술로 최대한 공을 들여 아름답게 지어지길 원했다. 성당의 이름에 선왕 중 첫째로 성인이 된 생 루이의 이름을 붙여 봉헌했다.

성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나폴레옹 1세는 “내가 한없이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들의 한 가운데, 센느 강변에 묻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그의 유지는 사망 후 20년이 흐른 1840년 실현됐다. 루이 필립이 이끌던 7월 왕정 때였는데,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 의식해 루이 필립은 나폴레옹 시신의 귀환을 망설였던 반면, 그의 아들 오를레앙 공작은 적극적이었다. 빅토르 위고나 알렉상드르 브리마와 같은 당대 최고의 작가들은 후자를 지지했다.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의 관은 그가 지시했지만 원공을 보지 못했던 개선문을 통해 ‘센느 강변’에 위치한 앵벌리드로 향했다. 위고의 시집 〈빛과 그림자〉는 돌아온 나폴레옹에 대한 현사다. 나폴레옹 외에도 프랑스를 위해 싸웠던 전쟁 영웅들 다수가 이 성당에 묻혀 있어, 성당을 짓은 루이 14세의 의도는 빛거지지 않은 셈이 됐다.

▲팡테옹

병에 시름하던 루이 15세는 1744년 몽마르트와 함께 파리의 유이한 언덕, 생 쥐느비에브에 성당을 짓기로 한다. 쥐느비에브 성인은 파리 시의 수호성인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시작된 공사는 혁명의 기운이 고조에 달한 1790년 완공됐다. 가톨릭에 적대적이었던 혁명 세력이 건축가 수플로의 야심작인 이 건물을 성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놓아둘 리 없었다.

1791년 “민중의 대변자”로 추앙받던 혁명가 미라보의 사망을 계기로 건물을 프랑스의 위대한 영웅에게 바쳐야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영국의 위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의회는 “생 쥐느비에브 언덕에 신축된 건물을 우리의 자유를 위해 헌신한 위인을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결정은 의회에서 하며, 혁명 전에 사망한 데카르트와 볼테르, 루소 등을 안장한다. 건물에는 ‘위대한 이들에 의해 조국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다’는 문구를 새긴다” 등의 결정을 내렸다. ‘신의 사원’, 성당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화국의 사원’, 국립묘지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혁명 세력이 성당을 파괴하고, 성직자를 내쫓았기 때문에 가톨릭과 혁명은 양립하기 어려운 적대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가톨릭이 반혁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존재한다. 신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가톨릭 교리가 인권선언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이번에는 가톨릭의 박애 정신이 깔려 있다. 내세에서나 가능하다고 믿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혁명을 통해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앵벌리드 둠 성당의 전경.

**150여 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 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제허정 서비스표 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